農業經濟學科의 현황과 개선 방향

金 英 植
(高麗大 農業經濟學科)

1. 학과의 一般現況

農業經濟學科는 창설된 지가 비교적 오래된 학과이다. 그러나 아직 學科에 대한 社會的인 인식은 잘 되어 있지 않은 학과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農業經濟學의 대상인 農業 또는 農村問題의 성격과 학과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의 변화 추세에 따라 학과의 性格과 敎育目標가 조정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農業經濟學科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학과의 성격과 교육목표의 조정 방향, 교과내용의 개선 또는 擴充, 그리고 학과의 發展에 관련된 기타 當面課題의 改善方向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학과의 一般現況을 살펴보자. 應用社會科學의 한 분야로 서울대학교에서 農業經濟學科를 처음으로 창설한 해는 1946년으로, 이미 40년이 지났다. 그 후 1959년에 고려대학교에서 農業經營學科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60년대와 '70년대에 몇 개 대학이, 그리고 '80년 이후에도 5개 대학에서 農業經濟 또는 農業經營學科를 창설하였다. 학과의 명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성격으로 봐서 農業經濟學의 범주에 속하는 학과가 '86년 현재 전국 17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이들 농업경제학과에서 모집하는 學部生의 모집 인원은 '86학년도의 경우 800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경제학과의 大學院課程은 1952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창설한 이후, 현재에는 전국 9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 대학원에서 배출하는 학생수는 최근 연평균 碩士가 10~20명, 博士가 1~2명 정도이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농업경제학과는 현재 대부분이 農科大學에 소속되어 있다. 학과의 명칭은 고려대학교를 위시하여 일부 대학에서 학과 창설 당시에는 農業經營學科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모두 農業經濟學科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런데 최근에 학과의 명칭을 조정 또는 학과의 內容을 分化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대학에서는 최근에 農科大學을 産業大學으로 그리고 農業經濟學科를 産業經濟學科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 명칭을 보아서는 학과의 性格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敎科內容을 살펴보면 農業經濟學科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농과대학으로부터 畜産大學을 분리하고 畜産經營學科를 설치하였다. 현재 축산경영학과라는 명칭을 가진 학과가 3개 대학에 있으나 아직 학과 특유의 敎科內容이 開發되지 못하고 있어 농업경제학과의 교과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農業經濟學科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學位는 종

래에는 農學 學位였으나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經濟學 學位를 수여하는 대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려대학교의 農業經濟學科가 '85년부터, 그 이전에 수여해 오던 農學 學位를 經濟學 學位로 바꿈에 따라 지금은 농학 학위를 수여하는 농업경제학과는 한 대학도 없다. 이러한 수여 학위의 변화는 그 동안 농업경제학과의 성격이 農學技術分野로부터 一般經濟學分野에 더욱 가까와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 분야를 보면 農業 관련 분야보다 非農業 관련 분야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産業化 過程과 더불어 一般 企業體를 중심으로 한 비농업 관련 분야의 취업 기회가 높은 율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현저해졌다.

2. 학과의 性格과 敎育目標의 조정

일반적으로 敎育의 目標는 사회적인 수요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진다. 특히 應用的인 성격의 학과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현저하다. 農業經濟學科도 응용분야의 학과로서 학과 창설 이후 敎育目標와 학과의 性格이 꾸준히 변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도 농업경제학과는 그 대상인 農業 또는 農村의 役割과 이에 관련된 問題의 성격이 크게 변함에 따라 학과의 성격과 그 교육목표를 조정·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다.

농업경제학과가 학과로 창설될 당시에는 農業은 國家産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農業問題는 國民經濟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업부문의 重要性으로 農業經濟學科가 창설되기 전인 1920년경부터 농업경제학은 다른 두 분야에서 강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한 분야는 農業技術 분야인 農學科에서 農學經營問題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한 분야는 一般經濟學 분야에서 農業政策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 그 후 농업경제학과가 경제학 분야가 아닌 자연기술 분야인 農科大學에 설치됨에 따라 학과의 성격도 경제학보다 農業技術 쪽에 더욱 가까와졌다. 이러한 이유로 학과 창설 초기에는 農業技術, 作目의 선택, 生産要素의 適正投入水準, 費用分析, 농가장부조직 등 農家問題를 중심으로 한 農家經營分野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학과 창설 당시에는 農業經營學科의 명칭을 붙인 대학이 여러 곳 있었고, 졸업생에게도 農學 學位를 수여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경제학과는 農家經營問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사회적인 수요의 변화에 따라 학과의 성격이 현저히 변화하였다. 농업경제학의 대상이 農家問題로부터 광범위한 農業 또는 農村의 問題로 확대되고, 학과의 성격은 농업기술 분야보다 일반경제학 분야에 가까운 應用經濟學科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학과 성격의 변화에 따라 지금은 농업경제학과 졸업생에게 經濟學 學位를 수여하고 있다. 그리고 학과 창설 당시에는 農業問題의 중요성으로 일반경제학 분야에서도 농업경제학의 강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농업경제학과가 없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農業經濟學科의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農業經濟學科의 성격이나 그 發展過程은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비슷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00년을 전후하여 농업경제학의 내용이 經濟學分野와 農業技術分野에서 강의되기 시작하였다. George F. Warren을 중심으로 한 農業技術分野에서 발전한 농업경제학은 農家經營問題에 중점을 두고, 1910년에 農家經營學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Henry C. Taylor를 중심으로 經濟學分野에서 발전한 농업경제학은 農業部門의 經濟問題에 중점을 두고, 1916년에 農業經濟學會를 조직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의 토의를 거쳐 1919년에는 두 학회가 農業經濟學會로 통합되었고, 농업경제학은 農家問題뿐만 아니라 農業 및 農村經濟問題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그 후 農業의 중요성으로 法(Morrill Act)에 의하여 각 州에 農科大學을 주축으로 하는 주립대학을 설립하도록 하고, 각 농과대학에는 명칭은 상이하지만 農業經濟學科를 설치하였다. 농업경제학과가 기술분야인 農科大學에 설치됨에 따라 초기에는 역시 農業經營問題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農業經濟學의 내용이 농가단위의 경영 문제뿐만 아니라, 農業部門問題, 자연자원의 개발 및 보

전 문제, 농촌환경 및 農村社會問題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農業經濟學科의 성격은 그 대상을 農業 또는 經濟問題 이상의 범위로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학과의 명칭도 農業經濟 및 農村社會學科, 農業 및 資源經濟學科, 農業 및 應用經濟學科 등으로 학과의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응용 분야의 학과는 최근 그 성격이 종래의 학문적 이론에 기초를 두고 구분되기보다 현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과 성격의 발전 경향을 고려하면 앞으로 農業經濟學科의 성격은 그 대상인 農業 또는 食糧問題, 農村問題의 성격에 비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기술, 경제 및 사회학적 응용 지식을 필요로 하고, 농업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농기구 등 農業生產要素產業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 농업 관련산업의 문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農業經濟學科는 農學 學位와 經濟學 學位를 수여하는 성격에서 農業經濟學 學位를 수여할 수 있는 학과로 敎育目標와 性格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敎科目과 敎科內容의 개선

현재 農業經濟學科의 교과내용은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學部課程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學士學位에 필요한 최저 요구학점 140학점 중에 일반교양과목의 학점이 30~40학점이고, 부전공을 포함한 자유선택과목이 약 30학점, 계열교양 또는 전공기초과목이 약 20학점, 전공필수가 25학점, 전공선택이 30학점으로 되어 있다.

전공기초과목으로는 農學技術分野의 과목이 1~2개 과목, 統計學, 經濟原論, 農業經濟學槪論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필수와 선택을 포함한 전공과목의 학점은 50~60학점이 되나, 이들 과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는 데는 확실한 기준이 없고 대학별로 교수진의 구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공과목에 속하는 중요 과목을 보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등 一般經濟理論科目, 農家經營, 경영진단, 부기 및 회계학 등 農家經營分野科目, 生產經濟學分野科目, 농산물 시장·유통 및 농산물 가격분야 과목, 土地 및 資源經濟分野科目, 農業發展論, 農業政策, 農業財政, 金融論, 農產物 貿易論, 經濟統計 및 計量經濟學, 經濟史 및 農業史, 農村社會學 그리고 農村調査論, 協同組合論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현재 우리나라 農業經濟學科의 敎科內容의 특색과 몇 가지 問題點 및 이의 改善方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내용이 아직 農業經濟學 學位를 수여하기에는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교양과목의 학점을 제외한 100~110 학점 중에 필수와 선택을 포함한 전공분야의 학점이 50~60학점에 불과하고, 전공분야의 학점 중에도 일반경제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경제학과 과목보다 오히려 경제학과를 위주로 한 인접학과의 과목이 더 많은 비중을 포함하고 있다. 學科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공학과의 과목과 인접학과 과목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60대 40의 비율임을 고려하면 農業經濟學科는 교과내용 면에 있어서 학과의 性格이 뚜렷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응용분야의 학과로서 앞으로 특히 農村調査를 포함한 實習分野에 대한 전공과목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農業技術分野의 과목이 1~2개 과목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그 비중이 아주 작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農業經濟學科는 2학년까지는 學科別 전공 구분이 없이 농학계열 공통과목을 수강하고 3학년부터 전공분야로 구분되는데 공통과목의 과반수 이상이 일반 농업기술에 관련된 과목이다. 물론 大學院의 경우는 農業技術分野의 과목은 없고, 모두 전공과목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기술 분야의 교과목이 적은 이유의 하나는 졸업 후 취업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서는 農業經濟學科 졸업생의 많은 부분이 農業技術을 기초 지식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분야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분야의 고용 선발과정에서도 농업기술 과목에 대한 기초지식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現實問題의 이해를 위해서는 농업기술 분야의 과목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째, 대학에 따라서는 기초이론과목,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農業經濟學科는 응용분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응용을 위해서는 튼튼한 理論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 또 대학에 따라서는 전공선택 성격의 과목이 기초 또는 필수과목에 포함되어 있고, 經濟理論 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과학분야인 農業經濟學科의 교과목에 기초적인 數學科目이 교양과목으로도 제외되어 있는 대학이 상당수 있다. 이와 같이 기초이론 과목의 이해 없이 農業經濟學을 수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업경제학 강의가 산만한 현실 토의에 그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 이외에도 앞으로 學會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교과내용에 대한 연구·토의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다.

4. 기타 當面課題의 개선

이상에서 學科의 성격과 교육목표의 조정 방향, 그리고 敎科內容의 改善方向을 토의하였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앞으로 農業經濟學科의 發展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當面問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몇 가지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敎科內容의 開發과 교과서의 정비가 필요하다.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농업경제학과의 교과목 일람표에 의하면 農業經濟學은 약 20여 개의 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들 과목의 상당수는 교과목으로 세분된 지가 아직 오래되지 않아 과목의 내용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 특히 최근에 세분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學會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교과목의 명칭과 그 내용 및 범위에 대한 토의가 분야별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農業經濟學 분야의 대부분의 과목은 아직 교과서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는 물론 응용과목의 성격으로 저술의 곤란성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經濟的 理由로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교과서의 개발 연구를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과의 성격에 대한 社會的인 認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기관에서도 학과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취업 또는 사회 진출이 전공분야와 잘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 관련기관 또는 기업체가 전공분야인 農業經濟學科에서보다 一般經濟學分野에서 취업안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공분야의 취업경쟁에서도 농업경제학이 아닌 일반경제학 과목으로 경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과의 사회적 인식의 부족에 의한 이러한 현상은 학과 학생들의 학과목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학과 고유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세째, 實習과 協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업경제학과는 응용분야의 학과로 農村調査나 現場實習이 중요하다. 이러한 실습과목에 대한 교과내용의 개발과 실습비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農業經濟學科에 대한 실습비 지원은 일반 실험실 실습을 하는 학과에 비교해서 크게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경제학과의 現場調査實習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습비 지원의 부족으로 특히 大學院課程의 논문연구가 현장조사 자료에 바탕을 두지 못하고 피상적인 論理에 그치고 質的인 向上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실습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調査資料室의 보강과 産學協同活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련기관과 공동 조사·연구를 통하여 특히 大學院課程의 학생들에게 현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논문연구의 質的 向上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